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주일에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10월 22일 (제122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럼

육체가 귀하다

여러분의 소유물 중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집인가? 자동차인가? 아니면 보석인가? 명품가방인가?
 나더러 소유한 것 중 가장 귀한 것을 꼽는다면 당연히 내 육체다. 내 몸이, 내 육체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 왜냐? 육체가 없으면 몇십억 하는 으리으리한 집도, 번쩍 번쩍한 자동차나 보석도, 명품가방도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사지가 마비되어 누워보니 가족도, 돈도, 명예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알겠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들은 아끼면서 육체는 함부로 한다. 아니 그것을 얻으려고 육체를 혹사하고 학대한다. 정말 어리석다. 어느 철인이 그러지 않았는가? “돈을 잃었느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요, 명예를 잃었느냐?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었느냐? 다 잃은 것이다.”라고. 돈도, 명예도 건강이 있으면 얻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돈과 명예가 있어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다.
 병원에 심방을 간 적이 있다. 나는 그가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1인실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6인실 구석에 누워있었다. 나는 그에게 ‘그 돈 다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아끼냐?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다. 돈을 아끼지 말고, 육체를 아껴라.’라고 말해줬다.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육체를 경이 여긴다는 것이다. 영이 중요하지, 흠으로 돌아갈 육체가 무슨 대순가 생각한다. 나도 그랬다. 어느 목사님이 ‘영이 곤(困)하면 육이 낙(樂)하고, 육이 낙(樂)하면 영이 곤(困)하다’는 말씀을 듣고는 3년만 살다 가겠다고 육체를 포기했었다. 그랬더니 75kg 나가던 사람이 53kg까지 말라 허리에 복대를 차야 할 정도였다. 나는 나중에 깨달았다. 더러운 그릇은 닦아 쓸 수 있지만, 깨진 그릇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육이 낙(樂)해야 영도 낙(樂)하다는 것을.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16:26)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내 육체를 위해 투자하는 데 인색하지 마라. 건강이 삶의 기초다.

일본 나가노예수중심교회(長野イエス中心教会)

7년간 나가노예수중심교회를 이끌던 강일석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1년 7개월, 그동안 나가노예수중심교회는 새롭게 단장을 하였고, 이번에 총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린 우리는 바로 차편을 이용하여 나가노로 향했다. 비행시간은 2시간도 채 안 됐지만, 나가노까지는 길은 4시간이 넘게 걸렸다. 어둠이 내리고 있는 나가노는 높은 산세와 개천이 흐르는 정겨운 소리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이른 아침 한국을 떠난 지 꼬박 하루가 다 지나서야 나가노에 이른 것이지만, 우리는 바로 나가노예수중심교회를 방문하여 한미숙 사모, 장남 천수 및 성

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귀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면 그동안 이국의 삶에 켜켜이 쌓여있던 아픔을 눈물로 쏟아놓는다. 그 모습이 어찌 그리 귀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목사님은 1시에 단에 오르셔서 한미숙 사모에게 전도사 임명장을, 그리고 장경희, 정순자 권사에게 임직증서를 전달하신 후, 내리 3시간을 설교하셨다. 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본 땅에서 머리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나는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을 만나면 꼭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타국에 왔으면 더 이상 한국의 잣대

습니다(요1:12).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며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회개했으면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달라,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달라, 배필이 필요하면 나에게 꼭 맞는 배필을 달라고 왜 구하지 못합니까?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본말을 잘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자와 동행해야 부자가



일본 나가노예수중심교회 입당예배(2023년 10월 17일)

도들과 기쁨의 만남을 가졌다. 목자를 잃고 1년 넘게 교회를 지켜온 그들은 총회장 목사님의 방문이 그저 감격스러울 뿐이었다. 목사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아들 천수에게 아버지가 강일석 목사가 이 일본 땅에 뿌린 기도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라고 격려했다.
 이튿날 오후 1시, 입당예배가 진행되는 나가노예수중심교회에는 도쿄, 지바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성도들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해외 성도들은 목사님을 보는 것 자체가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이

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적응하여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일본에 왔으면 일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한국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일본 마귀가 쉼 없이 어럽다느니, 한국 돈으로 얼마만데 어떻게 쓰느냐 등, 자신을 스스로 자꾸 이방인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강을 건넌다면 뱃목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흥해를 건넌데 왜 자꾸 강 건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뿌리를 내려야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될 것 아닙니까? 왜 부정적인 자, 미련한 자를 따라다니며 같이 피폐한 삶을 살려고 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 자꾸 물을 줘야 되 썩을 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십일조를 꼭 지키기 바랍니다. 이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시험해보라고까지 하신 복된 말씀입니다(말3:10). 소경 인도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일본 땅에서 머리가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미숙 목사



나가노예수중심교회 전경



예배 후 기념촬영



한미숙 전도사 임명장 수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1:35~39)

자주 쓰는 연장과 기계는 녹슬지 않는다

저는 운전면허증을 딴 지가 50년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을 잘 못합니다. 언젠가 차를 몰고 광화문 쪽에 나갔다가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시동은 자꾸 꺼지고, 차선변경을 해야 하는데 줄지어 오는 차들 때문에 끼어들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뒤에서 뺨뺨거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전실력이 녹슬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랫동안 안 해서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말하기를, "하루 연습을 게을리하면 내가 알고, 이들을 게을리하면 캐디가 알고, 사흘을 게을리하면 온 세계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만 연습 안 해도 실력에 녹이 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며칠 연습 안 하면 눈에 필 정도로 녹이 스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골퍼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필드에 나가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고목도 가지치고 거름주면 새싹이 나고 꽃이 핀다

세계 3대 성악가라 하면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를 말합니다. 그들은 천부적인 성악가라고 합니다. 타고났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라도 오래 노래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의 성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녹이란 사람을 가려서 스는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기도원 창고를 가보니 기계들이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사용도 안 했고, 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비싼 자동차라고 아까워서 차고에 잘 모셔놔 보세요. 어쩌다 시동 걸면 잘 안 걸리고, 끄끄 소리만 냅니다. 여자분들, 모피 코트 좋아하시죠? 그거 아끼느라 안 입으면 삭습니다. 동물 표피가 말라서 그냥 놔둬도 뜯어진답니다. 오래 입으려면 겨울에 많이 입어야 한답니다. 뭘든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스는데, 처음에는 녹이 스는 정도지만, 그것을 계속 안 쓰고 방치하면 녹이 아예 기계를,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녹이 자동차를 먹어버려 고물로 만들고, 녹이 모피 코트를 먹어버려 못 입게 되고, 녹이 최고의 선수를 먹어버려 삼류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오래 대화 안 하고, 오래 안 만나면 녹이 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서먹하고, 어쩌다 만나도 할 말도 없는 애매한 관계가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할 말이 많을 거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자꾸 말이 끊깁니다. 그러나 매일 만나는 친구에게는 자질구레한 이야기까지 끝이 없지요. 육체도 그렇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저

를 따라오신 성도분들은 최소 60대 이상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 건데, 꼭 운동하십시오. 늙었다고,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육체에 녹이 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 움직이게 됩니다. 아프니까 더 움직이고, 힘이 없으니까 더 움직여서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녹이 육체를 먹어버려 진짜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 이든 실력이든, 기계든 육체든 늘 기름 치고, 닦고, 조여야 하고 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과 영혼도 녹이 슬까요? 슬다 마다요. 관리 하지 않으면 영혼도

녹이 습니다. 일단 당신의 영혼이 녹슬었는지 안 슬었는지 자가진단해볼까요? 예전에는 기도했는데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녹슨 겁니다. 세상 책은 봐도 성경은 안 읽습니까? 녹슨 겁니다. 부정적인 말, 세상적인 말, 저속한 말, 불평과 원망이 당신 입에서 술술 나오니까? 녹슨 겁니다. 예전에는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차량으로 봉사했었는데 지금 손 놓고 있습니까? 녹슨 겁니다. 예배시간이 지루하고 길게 느껴집니까? 녹이 습니다. 사는 데 지장은 없다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녹슨다고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이 인생을 먹어치울 날이 곧 옵니다. 영혼이 잘되어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셨는데 (요삼1:2), 영이 녹슬었으니 범사에 녹슬고, 건강도 녹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 다. 영혼에 기름을 치고 닦고 조이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충만입니다.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평생 녹이 안 스는 것이 아닙니다. 항

상, 꾸준히, 늘 성령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살전 5:17).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로 하루를 여셨고(막1:35),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셨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그래서 예수님만 봐도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병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그의 아버지가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쫓지 못해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겹연쩍은 듯이 예수님께 그 비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말씀 하 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막9:29).

또한 에베소서 6장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6:17)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공격형 무기입니다. 검이 있어야 마귀와 그의 즐거움을 무찌를 수 있는데 검에 녹이 슬었다면 어찌 될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마4).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지고 놀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마귀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입니다(히4:12). 시편 1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의 두 날

개입니다. 양쪽 날개가 다 있어야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 교회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행6:4)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기도와 성경 한 권의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게을러서 못합니다. 게으름은 마치 블랙홀과 같아 한 번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잠언에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잠6:6),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12:24) 등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 경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주인에게서 다섯 달란트 받아 즉시 장사해서 열 달란트 만든 종과 두 달란트 받아 네 달란트 만든 종이 나오고, 또 한 달란트 받아 장사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둔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온 후 어떻게 됩니까? 열 달란트 만든 종과 네 달란트 만든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25:21)라고 칭찬했지만, 게을러서 땅에 묻어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마25:30)고 하셨습니다. 영적 게으름의 끝은 바깥 어두운 곳, 곧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으름이란 블랙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고 말합니다.

편안함이란 네 인생을 썩먹는 마약이다

여러분, 자주 쓰는 열쇠는 빛이 나고 문도 잘 열립니다. 기도와 말씀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에 녹이 습다면 천국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편안함은 마귀가 쓰는 마약과 같습니다. 마귀는 교회에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편안함으로 우리를 게으르게 하여 기도하지 않게, 말씀을 보지 않게 할 뿐입니다. 우리, 녹이 더 슬기 전에 녹을 제함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5:15~16).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교단소식 ::

해산의 수고

‘내가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총회장님의 저 고백만큼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는 이제껏 없다. ‘과연 얼마만큼의 섬김과 또 얼마만큼의 자기 부인과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고백일까?’ 거듭 곱씹게 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대 항암 식재료 가운데 마늘은 항상 첫 번째로 거론된다. 그런데 그거 아시는가? 통마늘 상태로 요리할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항암효과나 동맥경화 예방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알리인(Alliin)은 마늘의 주성분이다. 그런데 마늘이 잘리거나 으개져야, 그때 효소 작용에 의해 알리인이 알리신(Allicin)으로 변화된다고 한다. 그렇다. 잘리거나 으개질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이 알리신에 의해서 항균과 살균 작용을 동반한 항암효과가 발휘된다. 또한 이 알리신에 열을 가하면 아호엔(Ajoene)으로 변화된다고 하는데, 이 아호엔은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침착을 막아 혈액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통마늘이 아닌 썰거나 으개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썰거나 으개면, 또 익히는 과정 가운데 통마늘 상태로 있을 때와는 다르게 더 다양한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반면 통마늘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따름이다. 그렇다. 잘리고 부서진 마늘이어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열 새끼 낳은 소, 멍에 벗을 날 없다’ 했던

가! 총회장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다 보면 절로 마음이 먹먹해진다. 총회장님의 고백처럼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 그 자체였다. 새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 수도 없이 스스로를 깨뜨리고 으개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셨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 체력의 한계를 누가 쉬이 무시할 수 있으랴! 홀로 감내하셨을 ‘성전 이전’이라는 절체절명의 부담감을 또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지난 9월 10일 주일예배에서 페루 선교를 광고하시다가 순간 울컥하시는 총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아마도 뜻있는 성도들 모두가 이번 선교 여정을 위해 통곡의 기도를 드렸으리라 생각한다.

조개의 눈물이 진주를 만든다. 목사님의 마음 다한 헌신의 열매가 바로 예수중심이 되었고, 지금 우리 모두가 되었다. 서울 성전 이전을 앞두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길이 놓여 있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과 그것은 오래 참고 인내한 자의 몫이라는 사실뿐이다!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인내와 헌신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자식이 장성하면 그 부모의 집을 나눠지는 법이다. 우리가 지금껏 받은 은혜가 진정한 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더욱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는다(갈6:5-6).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신앙논객 ::

대체할 수 없는 사람

목사님의 페루 집회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뜨거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도 물론 인상 깊었지만, 그 외에 특별히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목사님의 말을 스페인어로 통역하시는 이현숙 선교사님이였다. 집회를 떠나시기 전 우루과이 정부로부터 선교사님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해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바람에, 우리 교단의 온 성도가 선교사님을 위해 합심으로 중보기도 하지 않았던가. 그때 목사님은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다른 통역관도 준비되어있다 하지만, 나는 나와 손발이 맞고 마음이 통하는 이현숙 선교사가 꼭 와야 한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대한 선교사님의 통역에는 지난 8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한 치의 막힘이나 주저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목사님이 큰소리로 외치시면 같이 외치고, 목사님이 조곤조곤 말씀하실 땐 조곤조곤 이야기하듯이 풀어내고, 제스처까지 목사님을 그대로 판에 박은 듯했다. 심지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통역을 한 호흡에 쉬지 않고 이어감으로써 설교의 흐름이 끊어지

지 않게 하는 것을 보면서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었다. ‘저러니까 목사님이 저 선교사님을 원하실 수밖에!’

몇 년 전에 누가 선교사님의 통역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스페인어를 정석으로 구사하는 게 아니고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좀 있다고.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영상을 보면서 깨달아졌다. 목사님께서는 스페인어를 문법에 맞게 정석으로 구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과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고, 영성이 맞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 L. 무디 목사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만 배워지 못해 발음과 문법이 엉망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설교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았던가. 나는 과연 목사님께 대체할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고 있는가? 선교사님을 보면서, 또 우리 교단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 일꾼들을 보면서 아직 멀었음을 실감한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정진하자.

신혁주 전도사

사도 바울 답아가기

10월 14일, 예수중심교회 서울 청년부에서는 사도 바울을 답아가는 특별한 야외예배가 진행되었다. ‘과주 영어마을’이라는 공간을 바울의 전도여행길이라 생각하고, 그가 전도한 것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명길을 체험해보는 것이였다. 애초 이곳은 관광지라 일반 관광객이 많을 것을 예상했지만 갑작스런 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그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또한 미션이 시작되는 순간 해가 짙짙하면서 이시간을 날씨로 축복해주시는 느낌이였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크게 깨달은 바는 해상으로, 육로로 복음이 어렵게 전해졌다는 것과 갖은 핍박과 고난에도 복음의 확장성과 구령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유대인을 넘어 헬라인, 로마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폭발하는 모습은 가히 인상적이었다.

미리 1개월 동안 성경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 13권을 깊이 묵상하며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

는 물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번 전도여행을 공부하며 역사 속 어려운 성경이 각자에게 살아 숨 쉬는 성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안디옥, 버가, 루스드라, 에베소, 고린도, 예루살렘 등의 지역 명칭도 이제 우리 집 주소처럼 익숙해졌다. 세 번째, 이 전도여행을 통해 총회장 목사님의 선교사역과 해외 복음사역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우리가 눈으로 본 총회장 목사님의 고난과 핍박, 선교여정은 바울과 소름 끼치도록 똑 닮은 길이었다. 또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바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는 것이 더 잘 들리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번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예수중심교회의 미래, 청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들이 제2의 이초석 목사가 되어 썩내려갈 사도행전의 새로운 장을 응원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침표가 없다.

송현혜 생도



:: 소망의 언덕 ::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아~~~~~!”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탄식만 터져 나왔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트 계주 결승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결승선 직전 우승을 직감한 우리나라 선수가 두 손을 하늘로 뻗고 우승 세레머니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 뒤따라오던 선수가 마지막 힘을 내서 뻗은 발이 0.01초 차이로 먼저 결승선에 들어온 것이다. 금메달인 줄 알고 기뻐하던 코치진과 선수는 전광판에 뜬 순위표를 확인하고 즉시 심판에게 달려가 항의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결과 상대 선수의 발이 먼저 들어왔음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평평 눈물을 흘리며 쓸쓸히 퇴장하였다.

필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전교 1등을 하였다. 1점 차이로 순위가 오가는 것에 예민하던 깽쟁이 여학생들은 교무실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했지만, 울백을 받은 사람은 전교생 중에 나 한 명뿐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핑계를 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길고 긴 겨울방학과 1학기 내내 놀았다.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초등학교 내내 나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친구가 한번 나를 제치고 앞서가니 다시 따라잡기가 무척이나 어려웠다.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친 사건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 노력한다면 그 선수는 분명 다시 승리를 거머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생에 있어서 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실수였다.

믿음의 선전들은 크건 작건 그 어떤 성공에도 도취하지 않고 더욱 앞을 보고 달려갔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빌3:12)고 했다. 그래서 결승선, 곧 주님 앞에서 부름의 상을 받겠다고 이야기한다.

총회장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일궈놓으신 수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전 세계에 퍼져있다. 그러니 ‘이쯤이면 됐어.’라고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또 자신을 치시며 페루를 다녀오셨다. 우리도 그런 목사님을 본받아 끝까지 신앙에 힘을 내는 예수중심인이 되어보자.

이현승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참된 깨달음 ::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지난 교회신문(1207호, 2023. 6. 25)에 어머니께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요를 부르는 노래 봉사단 공연장소에 모인 어르신들을 전도하러 갔다가, 타 교단의 수석 장로인 봉사단장님과 인연이 되어 아버지께서 노래 봉사단에 합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단장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된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후의 일입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심방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함께 참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심방 날, 공항에 부모님을 모시러 갔는데, 저 멀리 우리 교회 마크가 새겨진 와이셔츠와 목걸이형 배지(타이슬링)를 착용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교회 나오신 지 이제 두 달 되신 분이 '나는 예수중심교인'이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며 비행기를 타고 오신 것만으로도 놀랐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목사님을 영접하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깊은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겨우 두 달이 지났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행복한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 후, 2주간의 기도원집회 동안 아버지

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설렘으로 예배 시간을 기다리시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예배에 즐기지도 않으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버지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으시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눈에만 담아둘 수 없어 몰래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집회 첫 주 성령 세례 시간에는 우리들만의 007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아버지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열정이 대단하시니, "성령세례 받을 분, 단으로 올라오세요."라고 하면 바로 내달려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눈을 반짝이며 긴장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신호가 울리자, 어머니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 이시대 목사님 바로 앞자리를 선점하고, 저는 아버지를 뒤에서 밀어드리며 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등에 손을 얹고 눈물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어머니는 안수하고 지나가는 이시대 목사님의 손을 계속 붙잡아서 7번이나 아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응답은 소망의 열도에 정비례했고, 아버지는 뜨겁게 성령을 받았습시다. 너무 뜨거웠을까요? 단에서 내려오는 길에 와이셔츠를 입은 아버지를, 지교회 목사님으로 착각한 어느 성도님이 안수해달라고 붙잡는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회 2주차 침례식에 참석해서 직접 침례가 운도 입혀드렸는데, 눈물이 나는 것을 참고 감격스러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아버지의 침례 장면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아버지는 2주 동안의 기도원집회가 금방 지나갔다면서 벌써 다음 기도원집회를 고대하고 계시고, 정년퇴직을 해서 시간과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

의 일에 열심을 낸 결단을 하시더니, 자원하여 서울교회 건축헌금을 드리며 총회장 목사님께 축복 기도도 받으셨고, 기도원집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매주 2회 어머니와 함께 즐거이 전도하러 나가시고, 주말날 교회 버스 앞에서 전도한 어르신들을 영접하고, 교회 청소하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집사 임직까지 받으셨는데,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교회 나오신 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축복해주셨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34년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란 저는 어머니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믿음이 빠르게 자라고 계시는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의 입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좋은 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징검다리가 되어 건강하실 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노래 봉사단 활동을 통해 전도하면서 인생의 2막을 즐겁게 살고 계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가족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기억하시고(시56:8),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테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정명관
v-777@naver.com

성령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자녀들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다녀오셨어요." 하고 말로만 인사를 할 때가 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씻고 나오면, 아이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주된 대화내용이 자녀들의 요구사항이다. "아빠, 00 먹고 싶어요, 용돈 주세요. 00 필요하니 사 주세요." 인사도 살갑게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아빠를 찾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반면, 자녀로부터 진심이 담긴,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오늘 꼭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 이런 작은 사랑의 표현으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는 것을 부모가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성령님을 뒷방 어느 한쪽에 모셔 두었다가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꺼내오는 도깨비방망이 정도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본다. 성령님은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시다가 천국까지 인도해주시는 위대한 분이다. 그렇지만 너무도 작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 또한 환영받고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기도 하다.

늘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더 이상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저와 함께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

송명국 집사

서울교회 예배 안내

88체육관 사정으로 인천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실 때는
교육관과 각 기도처에서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4부예배는 인천 서울간 교통정체를 고려하여 오후 2시로 변경합니다.

Good News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있어서 '스마일 점퍼'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우상혁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계육상연맹 주최 다이아몬드리그 파이널에서 개인 실외 최고기록 2m 35를 넘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시합 때마다 준비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인드컨트롤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이 뛰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는 3m에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종교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한들 하늘나라에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깊은 협곡이 있는데, 그 길이가 5m 정도만 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건너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100m가 넘는다면 평생의 수고가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과 행위들은 일시적으로 자기 위안

은 될지 모르지만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건널 수 없는 협곡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시고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헛된 수고를 마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상화평 목사
a26881009@gmail.com

JC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노량진 교육관)

문의 02. 533. 9191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